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 은 주\*\* · 박 숙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과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변화되어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표준화된 전문 간호영역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간호학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별도의 교육 없이 간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Shin & Cho, 2012). 실습교육은 교내실습과 교외실습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외실습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간호교육의 필수 항목으로 간호대학생은 재학 기간 중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임상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실무 현장에 연계하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미래 간호

사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이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고 구성하여 대상자에게 유능하게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im & Kim, 2015).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대상자에게 전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간호교육자가 기대하는 교육과정의 최종 성과결과로서 학생들이 실습교육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Byeon, et al., 2003). 따라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서 임상수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간호대학생은 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고 치료적 의사소통 및 비판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수행

\*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https://orcid.org/0000-0003-1894-8759>)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간호과학연구소(교신저자 E-mail: [yoursky@jbnu.ac.kr](mailto:yoursky@jbnu.ac.kr)) (<https://orcid.org/0000-0002-4348-1604>)

• Received: 1 March 2020 • Revised: 31 March 2020 • Accepted: 7 April 202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Sook Kyoung

College of Nurs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Republic of Korea

Tel: 82-63-270-4478, Fax: 82-63-270-3127, E-mail: [yoursky@jbnu.ac.kr](mailto:yoursky@jbnu.ac.kr)

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의 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과 행동,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실습 스트레스 등의 많은 영향요인이 보고되었고, 그 외 눈치, 임상실습 만족도,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등이 확인되었다(Park, 2009; Jung, 2011; Kim, 2014; Kim & Kim, 2015; Kim & Kim, 2018; Kim & Jee, 2019).

이렇게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내적·외적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며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Block & Kremen, 1996; Han & Kwon, 2019).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Block & Kremen, 1996)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Luthar & Cicchetti, 2000; Han & Kwon, 2019). 또한 자아탄력성은 개인차를 보이는 내적인 능력으로 긍정적 적응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발달과정 속에서 습득되고 변화되는 다이내믹한 과정으로 정의된다(Luthar & Cicchetti, 2000).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긴장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수준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 낮은 환경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 Kwon, 2019).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 동료 간호사 뿐 아니라 병원 내의 여러 직종 즉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응대하고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아탄력성은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 성향이며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수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전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Park, 2009).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 학업 적응, 대학생활 적응력, 공감피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Park, 2009; Lee & Park, 2013; Lee, 2015; Kim & Kim, 2019), 특히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쳐서 임상수행능력을 촉진

하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Shin, Lee & Lim, 2010).

임상실습 현장은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수행능력, 자아탄력성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성향을 바탕으로 지식의 통합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곳이다. 즉, 간호사는 간호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상자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이고 비판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되므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도 비판적 사고와 판단을 위한 성향이 필요하다(Park, 2009). 이러한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동기 또는 태도로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량이자 미래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의 핵심적 요소로서, 간호교육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Jung, 2011; Park, Chung, & Kim, 2016). 비판적 사고성향은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간호교육 인정평가를 위한 교육성과의 지표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인적 존재의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지식의 통합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해 가는 임상현장에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Kang & Lee, 201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 실무에서 전문적 책임과 수준 높은 간호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간호사가 전문 의료 인력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Park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기본간호술기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Kim, 2019; Park & Hong, 2016; Kim et al., 2011).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4; Kim & Kim, 2019). 개인의 지식과 기술 및 수행 사이를 연결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탄력성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도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9).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도 높아지며, 임상수행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이 비판적 사고성향(Park & Hong, 2016)과 임상수행능력(Kim & Kim, 2019)에 영향을 미치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매개변인이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 외의 변인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매개변인을 거치지 않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변인이다. 그동안 임상수행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이루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다루지 못했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선 연구들은 주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1차원적인 관계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영향요인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보는 것에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이들 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2차원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임상수행 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ure 1).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도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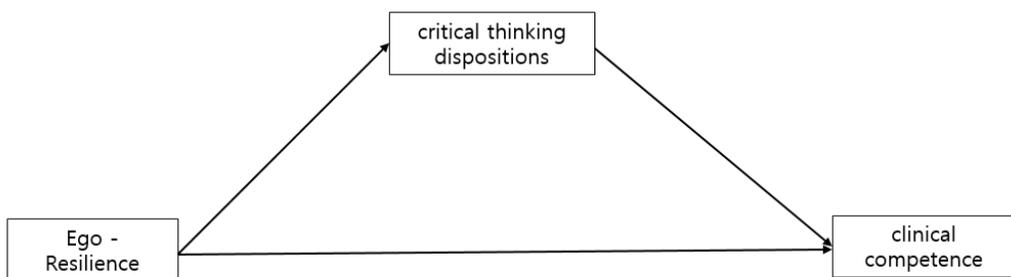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B도와 C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및 이해력에 장애가 없으며 연구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수를 산출하였는데,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5%, 중간효과 크기( $f$ ) .15, 독립변수 9개로 하였을 때 최소표본 수는 166명이었고,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자료 수집을 하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개인적 특성의 적응 능력이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하고 Yoo와 Shim (2002)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수정 보완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3문항, 확신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척도의 점수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는 도구개발 당시 .76이었고, Yoo와 Shim (2002)의 연구에서는 .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각 5개의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 낙관성의 신뢰도는 각각 .78, .79, .81, .61, .74였다.

#### 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hoi, 2005). Lee 등(1990)이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Choi (2005)가 어휘를 수정하고 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요인은 간호과정, 간호기술, 대인관계,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이며,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의 Likert 척도의 점수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는 도구개발 당시 .96이었으며 Choi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5개 하위요인인 간호과정, 간호기술, 대인관계,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의 신뢰도는 .81, .67, .70, .87, .77로 나타났다.

#### 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자기 조절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Yoon, 2004).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Yoon (2004)이 개발한 도구로 총 27 문항으로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하위요인은 지적열정/호기심의 5문항, 신중성의 4문항, 자신감의 4문항, 체계성의 3문항, 지적공정성의 4문항, 건전한 회의성의 4문항, 객관성의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척도의 점수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도구 개발 당시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제출하여 연구 승인을 받았다(\*\*\*\* 2017-10-009-001).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연구대상 간호대학(과)을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협조 및 동의를 구한 후 연구보조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비밀보장,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이름 이외의 방법으로 서명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 6

일부터 10월 24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대상 대학의 교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는 설문 작성에 대한 안내를 마친 후 자율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대표가 설문지를 수거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7부를 제외한 총 19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특성,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연구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h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 4단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는데, 각 Durbin-Watson 지수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73.6%(142명), 4학년이 26.4%(51명)이었고, 나이는 만 20~21세가 71.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1.5세였다. 종교는 무교가 55.6%(107명)였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가 68.9%(133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61.1%(118명)이었으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도 '보통이다'가 52.3%(101명)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1.3%(99명)이었고, '만족한다'가 31.1%(60명)이었다. 임상 실습 장소는 3차병원이 63.7%(123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63.2%(122명)에서 임상실습 시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81.1%(99명)가 간호사와의 관계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고,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11.9%(23명)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37±0.46점이었으며 하위 요인 중 감정통제가 3.65±0.53점으로 가장 높았고 활력이 3.06±0.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수행능력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46±0.46점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며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가 4.04±0.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의사소통 3.75±0.44점, 전문직 발전 3.66±0.41점, 간호과정 3.58±0.40점, 간호기술 3.55±0.44점의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37±0.44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 보면 객관성이 3.85±0.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적공정성 3.47±0.67점, 건전한 회의성 3.43±0.51점, 지적열정/호기심 3.32±0.51점, 자신감 3.27±0.39점, 신중성 3.21±0.41점, 체계성 3.17±0.56점이었다.

Table 1. Differences in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3)

Variable	Categories	n(%)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Clinical competenc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3rd	142(73.6)	3.38±0.45	-26 (.793)	3.70±0.46	-1.60 (.110)	3.42±0.46	-1.90 (.059)
	4th	51(26.4)	3.40±0.50		3.82±0.38		3.57±0.45	
Age(yrs)	20~21	137(71)	3.37±0.47	.33 (.718)	3.75±0.47	.34 (.715)	3.42±0.48	2.24 (.110)
	22~23	45(23.3)	3.43±0.45		3.71±0.39		3.56±0.37	
	>23	11(5.7)	3.43±0.47		3.64±0.33		3.60±0.45	
Religion	Christian <sup>a</sup>	51(26.4)	3.41±0.45		3.85±0.39		3.56±0.40	
	Buddhism <sup>b</sup>	10(5.2)	3.56±0.37	1.51 (.201)	3.73±0.61	1.14 (.341)	3.54±0.50	3.16 (.015)
	Catholic <sup>c</sup>	25(13.0)	3.49±0.57		3.67±0.60		3.65±0.64	c)a)b)d
	No religion <sup>d</sup>	107(55.4)	3.31±0.45		3.70±0.42		3.35±0.42	
Health status	Good	133(68.9)	3.45±0.45	2.63 (.009)	3.48±0.32	1.64 (.102)	3.51±0.46	2.59 (.010)
	Poor	60(31.1)	3.26±0.47	a)b	3.40±0.31		3.33±0.43	a)b
Satisfaction with college lives	Satisfaction <sup>a</sup>	61(31.6)	3.50±0.42	5.08 (.007)	3.77±0.46	1.07 (.346)	3.58±0.50	3.02 (.051)
	Usually <sup>b</sup>	118(61.1)	3.36±0.47		3.74±0.43		3.40±0.44	
	Unsatisfaction <sup>c</sup>	14(7.3)	3.10±0.42	a)b)c	3.60±0.45		3.40±0.3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sup>a</sup>	78(40.4)	3.50±0.40	4.32 (.015)	3.55±0.29	5.33 (.006)	3.59±0.48	6.66 (.002)
	Usually <sup>b</sup>	101(52.3)	3.30±0.47	a)c)b	3.40±0.33		3.35±0.41	a)c)b
	Unsatisfaction <sup>c</sup>	14(7.3)	3.35±0.62		3.38±0.34		3.52±0.4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up>a</sup>	60(31.1)	3.48±0.42	1.86 (.159)	3.79±0.50	.64 (.527)	3.41±0.47	3.57 (.030)
	Usually <sup>b</sup>	99(51.3)	3.37±0.50		3.71±0.44		3.41±0.47	a,b)c
	Unsatisfaction <sup>c</sup>	34(17.6)	3.30±0.39		3.70±0.38		3.37±0.42	
Difficult relations in clinical practice	Yes	122(63.2)	3.40±0.49	0.43 (.671)	3.77±0.44	0.80 (.427)	3.50±0.45	0.99 (.325)
	No	71(36.8)	3.38±0.45		3.72±0.45		3.43±0.47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자아탄력성은 건강상태( $t=2.63, p=.009$ ), 대학생활 만족도( $F=5.08, p=.007$ ), 간호학과 만족도( $F=4.32, p=.01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는 '양호'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 or 나쁨'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간호학과 만족도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학과 만족도( $F=5.33, p=.006$ )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시한 사후검정 결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라고 응답한 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

임상수행능력은 종교( $F=3.16, p=.015$ ), 건강상태( $t=2.59, p=.010$ ), 간호학과 만족도( $F=6.66, p=.002$ ), 임상실습 만족도( $F=3.57, p=.03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종교에서는 '천주교'라고 응답한 군이 '기독교'라고 응답한 군보다, '기독교'라고 응답한 군이 '불교'라고 응답한 군보다, '불교'라고 응답한 군이 '무교'라고 응답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응답한 군이 '보통 또는 나쁨'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간호학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간의 관계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193)

Variable	Range	Mean ± SD
Ego-Resilience	1~5	3.37 ± 0.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9 ± 0.59
Confidence		3.41 ± 0.51
Emotional control		3.65 ± 0.53
Vitality		3.06 ± 0.83
Optimistic attitude		3.43 ± 0.5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1~5	3.37 ± 0.44
Objectivity		3.85 ± 0.47
Intellectual fairness		3.47 ± 0.67
Healthy skepticism		3.43 ± 0.51
Intellectual eagerness		3.32 ± 0.51
Self-confidence		3.27 ± 0.39
Prudence		3.21 ± 0.41
Systematicity		3.17 ± 0.56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1~5	3.46 ± 0.46
Nursing process		3.58 ± 0.40
Nursing skill		3.55 ± 0.44
Interpersonal relationship		3.36 ± 0.4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38 ± 0.54
Professional develop		3.46 ± 0.39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r=.481, p<.001$ ),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r=.366, p<.001$ )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r=.382, p<.001$ )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임상수행능력은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5.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65~2.0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45~0.58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오차의 공차한계가 0.45~0.79로 1.0이 하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1~2.82로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즉,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서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Table 4).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B=.78, p<.001$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52, p<.001$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과 매개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 $B=.39, p=.005$ ), 비판적 사고성향( $B=1.70, p<.001$ )은 임상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의 비표준화 계수 값과 3단계에서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비표준화 계수 값을 비교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193)

변수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r( $\rho$ )	r( $\rho$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481( $\rho<.001$ )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366( $\rho<.001$ )	.382( $\rho<.001$ )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 the Relationship to Ego-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Variables	B	$\beta$	t	$\rho$	Adj R <sup>2</sup>	F	$\rho$
1. Ego-resilience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78	.64	9.80	<.001	.29	89.61	<.001
2. Ego-resilience →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52	.42	5.09	<.001	.16	35.78	<.001
3.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49	92.60	<.001
1) Ego-resilience →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39	.14	2.86	.005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1.70	.11	9.63	<.001			
Sobel test (Z=6.85, $\rho<.001$ )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이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는데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Z=6.85, p<.001$ ).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3.37\pm 0.46$ 점으로 중간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 (2013)의 3.44점과 Kim과 Choi (2013)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3.34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Jo와 Lee (201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2.91점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연구의 대상자 연령이 달라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 환경적 특성이 상이하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문사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009)의 연구결과인 3.55점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은 발달단계 따라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동일한 전공학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연구대상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이 달라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6\pm 0.46$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와 Park (2013)의  $3.71\pm 0.33$ 점 보다 낮았고, Kim 등(2011)의 3.49점, Shin과 Cho (2012)의 3.45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연구된 시점이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의 개선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리더십, 기본간호수행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포함한 핵심간호역량 함양을 위해 간호학 실습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시점으로 현시점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진 방안의 효과가 다소 미흡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임상 실습현장이 환자들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구가 더욱 증가하면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관찰 위주와 활력징후 측정과 같은 단순술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임상실습을 통한 임상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화되고 있는 환경이므로 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이외에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다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3.37\pm 0.44$ 점으로 Kim과 Kim (2019)의  $3.49\pm 0.44$ 점, Kim과 Kim (2008)의 3.47점 보다 약간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졸업 시점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는 Joo (201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4학년 학생보다 3학년의 학생수가 더 많아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 (2013)의 연구와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hin, Lee와 Lim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하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기능으로 긍정적 적응의 결과라기보다는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Luthar & Cicchetti, 2000) 간호학과 입학 시부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지지프로그램이나 지지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3,4학년 시기에는 입학 시 보다 증진된 자아탄력성을 보유하여 낮은 환경에 적응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임상실습 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과 인문 사회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하는 Park (200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cheffer와 Rubenfeld (2000)가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기술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의해서도 학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정서적 특성 중 자신감은 비판적 사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자신감은 의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자신의 능력으로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Park, 2009). 그러므로 자신감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자아탄력성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함양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지며 이렇게 높아진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 (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학과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높히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며(Park, 2009), 학생 시기에 향상된 임상수행능력은 긍정적 임상실습의 경험을 가지게 하고 이것은 졸업 후 신규 간호사의 성공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Lee & Park, 2013)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신규 간호사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교차원의 증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인 자신감 및 유능감, 긍정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감정조절 및 관리, 대인관계능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인 1,2학년 시기의 간호대학생에게 이를 적용하여 자아탄력성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Park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계속 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져 비판적 사고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는 동일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2011)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견해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하는 합리적 사고를 말한다(Ennis, 1991).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사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려는 성향이 없으면 비판적 사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성향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Park et al, 2016). 또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으로 비판적 사고적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조절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으므로(Park & Hong, 2016) 실습 교과목의 운영 시에 학생들이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실습운영을 임상실습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것은 제한적인 임상실습으로 현장에서 습득하지 못한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실습교육뿐 아니라 이론교육 과정 중에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중심 학습과 같은 교수법을 도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Min (2017)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중심 질문수업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강의 시 학습자 중심의 질문수업을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진행된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의 각각의 관계와 영향을 확인하는 1차원적 연구

에 비해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2차원적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증진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간호 교육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간호대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전략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제고하는 관리전략과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적·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진시키는 교육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비판적 사고성향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을 통해 증진되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증진시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에게 주요한 핵심역량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접근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Byeon, Y. S., Lim, N. Y., Kang, K. S., Sung, M. S., Won, J. S., Ko, I. S., et al.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y for new graduate nurs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0(1), 47-56.
- Choi, M.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Ennis R. (1991). Critical thinking: A streamlined conception. *Teaching Philosophy*, 14(1), 44-48.  
<http://doi.org/10.5840/teachphil19911412>
- Han, S. J., & Kwon, M. S.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ego-resilience and Disaster Stress by Disaster-related Characteristics of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1), 5-19.  
<http://doi.org/10.5932/JKPHN.2019.33.1.5>
- Jo, H. I., & Lee, N. Y.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 and ego-resili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Youth Research*, 17(6), 1-20.
- Joo, M. S. (2016). The effects of improv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18(4), 2271-2286.
- Jung, S. 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 Kang, M. A., & Lee, S. K. (2016).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452-461. <http://doi.org/10.5977/jkasne.2016.22.4.452>
- Kim, K. N. (2014).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2), 55-65. <http://doi.org/10.17547/kjsr.2014.22.2.55>
- Kim, I. S., Jang, Y. K., Park, S. H., & Song, S. H.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37-345.
- Kim, J. U., & Choi, M. S. (2013).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45-68.
- Kim, S. H., & Jee, Y. J. (2019). Factors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467-474.
- Kim, S. O., & Kim, S. M. (2015).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3), 452-462. <http://doi.org/10.5932/jkphn.2015.29.3.452>
- Kim, Y. A., & Kim, Y. H. (2018).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y and critical disposition o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679-690.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9.067>
- Kim, Y. A., & Kim, K. S. (2019). The relationships among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passion fatigu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387-399.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8.034>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March). *Accreditation manual with interpretive guidelines for Nursing Education*.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 Lee, E. K., & Park, J. A. (2013).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http://doi.org/10.5932/jkphn.2013.27.2.293>
- Lee, J. M. (2015). *Effects of a steps model-based nursing skill training program on knowledge,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885.  
<http://doi.org/10.1017/s0954579400004156>
- Scheffer, B. K., & Rubenfeld, M. G. (2000). A consensus statement on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9*(8), 352-359.  
<http://doi.org/10.3928/0148-4834-20001101-06>
- Min, H. D. (2017). *The effect of student-centered and problem-based clas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operative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Shin, K. A., & Cho, B. H.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6-56.  
<http://doi.org/10.7739/jkafn.2012.19.1.046>
- Shin, Y. W., Lee, H., & Lim, Y.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37-47.
- Park, A. N., Chung, K. H., & Kim, W. G. (2016).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2*(1), 1-10.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1.1>
- Park, J. A., & Hong, J. Y. (2016).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s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 342-351.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342>
- Park, W. J. (200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d,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3), 240-250.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ABSTRACT

## Effect of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sup>\*</sup>

**Song, Eun Ju**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Park, Sook Kyoung**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Method:**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design with a survey method. A total of 193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4 colleges of nursing in C city, and A and B province in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October 6, 2017 to October 24, 2017.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 There wer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of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with ego-resilience. In add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ha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how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educational approach to enhance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which is considered a key competency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Resilience, Clinical competency, Thinking, critical

*\* The research is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ro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